

■ 지회 소식 ■

경기벤처협회 신임회장 취임

사단법인 경기벤처협회 정기총회에서 전순득 21세기정보통신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 창립돼 현재 경기도 내 900여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기벤처협회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 단체이다.

전순득 신임 회장은 미국 예일대와 보스턴대 대학원에서 사회윤리 및 여성학을 전공한 후 UN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NGO 대표를 역임하면서 정치, 여성, 인권,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경영인이다.



안양

안양시에 8000여평 규모의 BIT센터 건립

경기도 안양시에 8000여평 규모의 BIT센터가 건립된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안양시는 기존 IT산업과 BT산업을 연계하는 BIT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관련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부근에 1795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생산·업무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돼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협회 관계자는 “다음달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준공되고 내년에는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가 건립되는 등 안양 BIT센터가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며 “바이오기업들에 업무와 생산시설이 모두 갖춰진 시설을 제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대구경북 벤처지원기관들, 올 해외시장 진출 지원 총력

대구경북지역 벤처기업 지원기관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사업에 나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경북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벤처 지원기관들은 해외 교육프로그램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은 물론 해외의 IT분야 기술 심포지엄 개최, 비즈니스 단 파견,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해외 IT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로 14일 ‘러시아 통신 및 보안기술 현황’을 주제로 한 IT분야 한·러 산업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 4개 지역에 비즈니스 단을 파견해 국내 IT벤처기업의 유럽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테크노파크는 해외전시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대구벤처밸리의 벤처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 협력 및 마케팅 기획과 실무를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일대일 전담사업도 벌인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해외 공동마케팅과 함께 해외 테크노파크와의 기술 및 마케팅 교류를 강화해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

조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테크노파크는 오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03년 중국 무역박람회에 KOTRA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테크노파크 해외전담인력을 지역기업과 동행토록 함으로써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밀착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경북테크노파크는 또 올해부터 기관내 입주기업간의 기술 및 마케팅 교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입주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해외 벤처보육기관(BI)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소프트웨어 콘퍼런스(가칭)를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관련기관과 지역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또 입주기업 가운데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유망 수출기업 인큐베이팅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대구 컨벤션센터와 협력해 오는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차이나조이전시회에 지역기업의 공동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